

2014 문화계 결산 ③문학·문화재

도서정가제 연착륙

문학 올해 문화계 최대 이슈는 도서정가제 시행이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물 정가를 도서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 시 표시된 정가에 맞춰 팔도록 하는 제도다.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당초 우려와 달리 시장은 다소 연착륙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판매량과 출간 종수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애초 우려했던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이나 판매량 급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광주 출신 박용철(1904~1938) 시인의 탄생 11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 시단에 큰 족적을 남긴 용어의 시 정신을 되새기고 그의 생애를 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치러졌다. 생가 일원에서 '나무야 용아' 주제로 치러진 문학제는 전국백일장 대회를 문화프로그램과 접목한 행사로 주목받았다.

또한 올해는 해남 출신 김남주(1945~1994) 시인 20주기가 되는 해이기도 했다. 그의 문학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문화제가 해남과 화창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광주에서 열렸다. 기념사업회 주최로 김남주아카이브전과 포엠콘서트도 열렸고, 특히 시극 '내가 김남주다'가 공연돼 김남주의 생애를 다양한 장르로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무등산 시인' 범대순(1930~2014) 전남대 영문과 교수가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30년 태어난 범 시인은 고려대 영문과 동



박용철 탄생 110주년·김남주 시인 20주기 행사 다채

'무등산 시인' 범대순 별세...시·도민 '한 책'으로 소통



故 범대순 시인

으로 현진건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나희덕 시인은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으로 제 6회 임화문학예술상과 미당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준태 시인은 오월 광주의 참상을 알린 시집 '아 광주여 대한민국의 십자가여'를 영역으로 출간, 광주 정신의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했다.

한편 올해 두 번째를 맞아 공지영의 '외롭고 높은 사다리'를 함께 읽은 전남대 한책읽기 운동 '한책'은 지역독서운동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광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에서 벗어나 전남지역에까지 확장해 시도민이 함께 책을 읽으며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흑인고수 루이의 북'을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쳤다. 시인은 타계 직전까지도 계림동 자택을 '범대순 시문학관'으로 꾸며 시민에 공개할 만큼 남다른 문학 사랑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중견 문인들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화경 소설가가 단편소설 '모

랑'으로 현진건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나희덕 시인은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으로 제 6회 임화문학예술상과 미당문학상을 수상했다. 김준태 시인은 오월 광주의 참상을 알린 시집 '아 광주여 대한민국의 십자가여'를 영역으로 출간, 광주 정신의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했다.

한편 올해 두 번째를 맞아 공지영의 '외롭고 높은 사다리'를 함께 읽은 전남대 한책읽기 운동 '한책'은 지역독서운동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광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행사에서 벗어나 전남지역에까지 확장해 시도민이 함께 책을 읽으며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흑인고수 루이의 북'을 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쳤다. 시인은 타계 직전까지도 계림동 자택을 '범대순 시문학관'으로 꾸며 시민에 공개할 만큼 남다른 문학 사랑을 보여주었다. 지역의 중견 문인들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화경 소설가가 단편소설 '모



아트문화전당 등에 레이저 아트·미디어 파사드 공연

이이남 감독 맡아...아트문화개발원 내년 1월 6일까지

빛의 도시 광주의 밤이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 내년 9월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빛의 예술'이 펼쳐지는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원장 최종만)은 내년 1월6일(매일 오후 6시~밤 12시)까지 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과 옛 전남도청 대 한책읽기 운동 '한책'을 영역으로 출간, 광주 정신의 문화적 세계화에 기여했다.

예술 감독을 맡았다. 이번 공연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준공과 광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미디어아트 부문 가입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옛 전남도청 별관 3개 면과 전일빌딩을 이용한 파사드는 다양한 기하학적 문양과 패턴들로 빛고를 광주의 상징성과 문화전당 설계 개념인 '빛의 숲'을 통한 예술작품을 비추는 '레이저 아트'와 '미디어 파사드'(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디지털 조명 연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빛의 움직임으로'를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이번 공연은 지역 출신의 세계적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가

또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하늘을 향해 '희망의 빛'을 쏘아 올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문화전당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의 발전을 염원한다.

어린이문화원 외벽에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광주, 문화전당을 소개하는 작품이 투영되고 있다. 특히 오색 불빛을 밝히는 수십개의 LED라이트 박스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문화전당을 찾은 박수현(여·32)씨는 "광주의 아름다운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며 "이번 행사 이후에도 다양한 미디어 작품들을 문화전당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1500년 만에 걸어나온 금동신발

나주 정촌고분서 출토...신창동 유적에선 2000년 된 철궁 나와

문화재 1500여 년 전 백제인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나주 다시면 정촌고분(나주시 향토문화유산 제13호) 출토 '금동신발'(사진·길이 32cm, 높이 9cm, 너비 9.5cm)은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5세기와 6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금동신발은 지금까지 발견된 17점의 금동신발 중 원형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어 학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현미경으로 봐야 미세한 선이 보일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형태의 백제계 금동신발은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화려했다. 금동신발 앞 부분에 장식된 용이 금방이라도 승천할 듯 꿈틀거리고, 신발 바닥에 새겨진 화려한 모양의 연꽃은 곧 꽃을 피우고 은은한 향기를 풍길듯한 느낌을 준다. 바닥에 새겨진 도깨비의 기개가 보는 이를 압도했다.

출토되는 유물이 '최초', '최고', '최대'를 자랑해 이른바 '3최' 유적이라고 불리는 신창동 유적에서 올해도 새로운 유물들이 쏟아졌다. 2000여 년 전의 것



으로 추정되는 철궁과 목검, 현악기 조각이 2013~2014년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됐고, 새로운 저습지 유적지가 확인됐다. 특히 철궁(90.7cm)은 여전히 탄성이 남아 있었다.

신창동 유적 보존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사적지에 포함되지 않은 유적지 내 마을이 개발되면서 곳곳에서 유적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광주시도 20년이 넘도록 사적지 내 사유지 매입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과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삼불좌상' 나주 다보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소조심유나한좌상'이 각각 보물로 지정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악극 속 전우치

31일 담양문화회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고전 속 인물 전우치가 음악으로 되살아났다.

전우치를 소재로 제작한 창작 음악극 '전우치'가 공연된다. 31일 오후 5시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

호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제작한 '전우치'는 고전과 '어우야담'에서 모티브를 얻어 전우치의 삶을 노래와 음악, 내레이션으로 표현했으며 관현악과 밴드 음악이 어우러졌다.

'전우치 서곡'을 시작으로 '노인 전우치의 회상 노래', '어우야 여우야', '천자문 2중창', '전우치 테마', '도사란 무엇이나' 등이 이어진다. 또 전우치가 활동했던 지역을 사진영상으로 보여준다.

리현수씨가 지휘를 맡았으며 임현신씨가 작곡했다. 테너 안동순(광양시립합창단원)씨가 주인공 전우치 역으로, 소프라노 한아름(전주시립합창단원)씨가 여우로 출연하며 바리톤 최교성, 장도국 씨 등이 출연한다. 놀이매 신명 객원단원으로 활동중인 김은숙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전석 무료. 문의 061-755-37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찾아가는 영화관'

수 천명이 찾아왔다



전남문예재단 운영...14개 시군 5200명 관람

전남 낙도 아이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지난 9월부터 영화관이 없어 평소 영화를 보기 어려운 오지·낙도를 직접 찾아가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이 낙도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9월부터 12월까지 상설 영화관이 없는 시군 19곳 중 14개 시군에서 총 23회에 걸쳐 '찾아가는 영화관'을 운영해 5190명의 지역민이 영화를 관람했다.

이는 지난해 재단에서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일환으로 도내 섬지역을 찾아 추억영화 상영 및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인 '섬마을 가설극장'(총 9회·1380명 관람)보다 네 배 가깝게 늘어난 수치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도내 영화기반시

설이 부족한 19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예회관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군민회관 등 지역 내 문화공간을 활용해 영화관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여수, 광양, 담양, 진도, 신안 총 14개 시군의 오지·낙도에서 추진했다.

또 주민들의 관람 편의를 돕기 위해 이동버스를 운영해 학교 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시네마 버스'(총 10회·2120명), 여수 이순신 광장과 무안 김대중 광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광장 영화관'(총 2회·300명) 등도 결성됐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와 여수, 순천 등 3곳에만 상설 영화 상영관이 있고 구례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 나주는 주말에만 상영하는 비상설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지역 062)525-4835 광주송정지역 062)941-3278

기차여행

우편 KORAIL 한국관광공사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정동진 새해일출 (무궁화호)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송정역출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12월 31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광주송정역출발) KTX로 떠나는 새해일출			1월 8일, 15일, 29일 1박2일 여행 우리의 땅 대마도 (목요일 출발)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요일	시간	일	정
22:0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21:0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21:10	광주송정역	집결 후 출발	(목)	05:00	광주 집결지	집결 후 출발
06:53	정동진역	도착 후 출발	23:24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23:32	서대전역	도착 후 출발	1/8	09:3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출항
07:00	정동진일출/천곡동굴/추임훗대바위/목호항어시장	자유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암/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04:30	낙산사일출/휴휴암/주문진어시장/정동진 관광		1/15	10:40	한국전망대/미우다하이/원통사/예보시타게 전망대/외타즈미 신사 관광 후 호텔로 이동	
15:30	동해역	출발	18:56	서대전역	출발	19:25	서대전역	출발	1/29	16:00	이완옹매국비/수선사/덕해옹주점촌 불초비/조선통신사비/고려문	
22:50	광주송정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1:09	광주송정역	도착	(금)	18:10	대마도 이즈하라항	출항
성인/경노/청소년 115,000원~ 소아 8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성인/청소년 95,000원~ 경노 93,000원~			광주출발조건 20명이상 / 1인 249,000원 부산출발조건 2명이상 / 1인 199,000원			